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9〉

화두, 간단(間斷) 없는 참구가 중요

조창환 선생에게 보낸 답서

삼가 편지는 받고서 그간 체후(體候)가 만중하시며 집안도 두루 평안함을 알았으니, 우러러 위안이 되고 송축합니다. 또 화두공부도 여일(如一)하게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순혈하기(純血下氣 : 혈기가 가라앉고 안정됨)도 잘 되는 모양이고, 잡념도 많이 제거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옛 선승들께서는 공부가 잘 되어도 기쁘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아니 되어도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으니, 견고하고 깊은 신념으로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화두 참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마음을 한 결 같이 하여 똥 누고 오줌 눌 때에도 간단(間斷)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석(朝夕)을 논해 무엇 하겠습니까?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다. 간단(間斷, 끊어짐) 없이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움직일 때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그리고 행주좌와와 깊은 산속, 도시를 막론하고 다만 화두를 참구하여 오래토록 익히는 것에 주력하십시오.

또 부처(佛)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각성(覺性 : 깨달음의 성품)이 신묘자재(神妙自在)하여 능히 고요하게도 하고 능히 움직이게도 하며, 능히 말하고 능히 침묵하게 하며, 능히 중생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며, 미(迷)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나니, 그 각성을 깨달으면 성인이고 미혹하면 범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묘(神妙)하다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싱그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神)이라는 말이 귀신(鬼神)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佛性)을 한 번 깨달으면 불생(不生), 불멸(不滅), 불구(不垢), 부정(不淨)이고, 또 옛과 지금에 걸쳐 무량무변해서 본래부터 불사(不死)인 것이니, 귀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혼백(魂魄)과 귀신이라는 말을 쓴 것은, 중생은 미(迷)하면 선악의 업을 지어 죽은 뒤에는 업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말한 것이니, 절대 부처(佛)를 귀신(鬼神)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이 들어온 이후에 재가자(신도)와 출가자(스님)를 막론하고 참선하여 도(道)를 깨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꼭 부처님 앞에서(사찰에서) 참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를 보는 복잡한 가운데에서 득력(得力)하는 것이 적정(寂靜)한 곳에서 득력하는 것보다 10만 억 배나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로지 당사자의 신심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만 줄이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기축(1949년) 2월 초4일
산승 방중원(方重遠) 올림

공부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깨침엔 견고한 신심이 필요해

이 편지는 강릉 사천초등학교 교장인 조창환에게 답한 편지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에는 마음을 한 결 같이 하여 일체처 일체시에 간단(間斷) 없이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佛)란 깨달았다는 뜻으로,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각성(覺性 : 깨달음의 성품)이 신묘자재(神妙自在)하여 능히 중생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기도 하며, 미(迷)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나니, 깨달으면 성인이고 미혹하면 범부이므로, 신묘(神妙)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신(神)이라는 말이 귀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대 불성과 혼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일제시대 자료 수집은 동국사 의무 근대 통해 현재 우리를 바로 본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대한제국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부터 104년, 을사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후 39년간의 암흑의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을 맞은 지 69주년을 맞는 2014년의 8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한일 관계는 조금도 진전 없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 등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강성기조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침탈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일제의 수찰기지 역할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군산 동국사다. 이곳 주지 종걸 스님은 사재를 털어 일제 만행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찾은 동국사에서 종걸 스님을 만났다. 대여섯평 남짓한 종걸 스님의 방은 수많은 자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입구에 자료정리를 위한 컴퓨터 앞에 겨우 앉을 공간만 남아있을 정도다.

사실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에 대해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못하다. 더구나 불교와 관련된 자료들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작은 엽서크기의 사진에서부터 일본군 총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집한 자료가 5000여 점에 이르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이유를 종걸 스님은 ‘동국사가 가진 시대의 의무’ 라고 설명했다.

“동국사의 역사적 가치는 일반 사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남아있고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은 동국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머무르는 동국사가 일제 강점기 자료를 발굴하고 홍보해 그 시대의 아팠던 역사를 알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걸 스님이 수집한 자료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시기도 모두 각각이다. 일제 강점기 초기 자료에서부터 광복 직전의 사료, 수탈의 현장 사진, 근대불교 관련 자료 등 그 종류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아직 채 정리하지 못한 자료도 수 백점이 넘는다. 그동안 자료 수집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자료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장자들이 쉽게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료를 수집하려면 소장처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소장자가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구입 자금의 어려움, 시간적인 제약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국내에는 실제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더라도 너무 고가의 자료들이다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걸 스님이 수집한 자료 중에는 주목해서 연구해야할 자료들도 상당수가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견한 조선불교 초대 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 스님의 자료도 그중 하나다.

서울 인사동에서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고서점을 운영하던 백두용 선생의 개업 당시 백용성 스님과 박한영 스님이 축하시를 남겼는데 박한영 스님은 ‘금강산 비로봉’ 이라는 한시를 썼다. 특이한 점은 박한영 스님은 조선불교월보사장 박한영이라고 썼고, 백용성 스님은 31본산개교사장 백용성이라고 기술했다.

당시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스님들의 소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종걸 스님은 설명했다.

또 이종욱 스님의 은사이자 월정사 주지를 역임한 홍보룡 스님의 명함은 일본 경매시장에 출품된 일제 헌병일기 수첩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1910년대 만들어진 스님들의 명함이 남아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밖에도 현재 조계사가 각황사 교당으로 처음 지었을 당시 ‘각황사’ 명문이 있는 암막새 기와, 1928년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개운사에서 열린 최초의 학인대회 전말을 기록해 놓은 책 등도 중요한 자료다. 특히 학인대회에 대한 책은 국내에 몇 권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이다.

최근에 입수한 혜화전문학교 교지, 중앙불전에 교재로 쓰였던 책, 강원도 전통 너와집으로 지어진 설악산 봉정암 사진 등도 근대불교의 민낯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꼽았다.

이와 함께 스님은 주목해야할 전적으로는 백양사 청화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 스님이 스스로 깨닫고 이를 문자로 남긴 〈관음문자〉라는 책이다. 훈민정음과 같은 맥락으로 범어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인이 읽고 쓸수 있는 특이한 문자를 만들었는데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출판됐다. 이 역시 학자들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스님은 강조했다.

5000여 점에 이르는 자료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가로형 ‘쌍림열반도’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해 환수하게 된 문화재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2013년 5월초 ‘쌍림열반도’ 가 일본에서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접한 종걸 스님은 일본의 ‘동국사를 지원해주는 모임’ 회장인 이치노헤 쇼코 스님에게 그림의 가치 확인을 부탁했다. 이후 조선 초기 이전의 작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매에 착수하게 됐으며, 결국 120:1의 경쟁 끝에 이치노헤 스님이 낙찰받아 동국사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환수했다.

‘쌍림열반도’ 가 한국에 입국하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본 관세청에서 문화재 반출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문화재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서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환수 이후 ‘쌍림열반도’ 는 서울대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했으며, 500년 전의 작품이 확실하는 판명을 받았고 현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쌍림열반도’ 환수와 같이 종걸 스님 곁에는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 동국사와 종걸 스님, 이치노헤 스님의 인연에는 동

근대사 연구하며 자료 5천여 점 수집
일본군 총검 · 엽서 등 분야 ‘각양각색’
지난해 ‘쌍림열반도’ 日서 환수 성과도
동국사에 日조동종 참사문비 제막 이끌어
이치노헤 스님 도움 커… 표지석 작업도
올바른 한일 관계, 日 진심어린 사과 우선
깊이 있는 원인 분석으로 얽힌 문제 풀어야

2012년 9월 16일 군산 동국사에서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 일본 조동종 운쇼지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지난해 4월 21일 남산에 있던 약초 관음사의 유구들을 둘러보고 있다.

올해 열린 동국사 기획전을 군산 이성수 부시장이 둘러보고 있는 모습.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인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